

# 간편하고 능률적인 표기법은 국제정보통신용 로마자를...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한글이 아닌 로마자로 적는 법을 말한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로마자 표기법은 발음 위주의 표기를 하고 부호가 잡다하여 컴퓨터로 쉽게 입력할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간편하고 능률적인 국제 정보통신용 로마자 표기법을 제안한다.



李 炫 馥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한글이 아닌 로마자로 적는 법을 말한다. 가령 Seoul, Kimpo, Pusan, Kim, Lee는 서울, 김포, 부산, 김(씨), 이(씨)를 로마자로 표기한 예이다. 그런데 로마자 표기법은 내용과 방법이 여러번 바뀌어 극심한 혼란을 보였으며 아직도 해결이 안된 상태이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로마자 표기법은 발음 위주의 표기를 하고 있고 또 반달 모양 등의 잡다한 구별 부호를 덧붙여야 하므로 컴퓨터로 쉽게 입력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에 필자는 국제 정보통신용의 간편하고 능률적인 로마자 표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한 표기법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하나의 음소를 하나의 글자로 적는다.
- 2) 반달과 어깨점 등 구별 부호를 제거한다.
- 3) 한글로의 환원성이 우수해

야 한다. 이제 “그 어른과 애의 발과 팔은 정말 정이 따듯하다.” 라는 문장을 현행 로마자 표기법으로 컴퓨터에 입력하면 다음과 같다.

〈현〉 ku\* o\*ru\*n'gwa aeu\*i palgwa p'alu\*n cho\*ngmal cho\*ng'i ttattu\*tt'ada(60).

여기서 /\*/ 표는 앞 글자의 위에 얹히는 반달 모양을 뜻하며 괄호 안의 숫자는 입력 타수를 나타낸다. 이제 이 문장을 과거의 문교부 안으로 적어 본다.

〈문〉geu eoleun'gwa aeeui balgwa paleun jeongmal jeong'i ddaddeus-hada(57)

현행 안과 문교부 안은 입력 타수에서 큰 차이가 없는 듯하나 입력은 문교부 안이 훨씬 수월하다. 이제 필자의 국제통신용 표기법으로 적으면 이렇다.

〈통〉 gw vrwngwa fwy balgwa pharwn jvqmal jvqi tatwshada(43타)

여기서 필자의 통신용 표기로는 입력 타수가 적고 인식하기가 훨씬 수월함을 알 수 있다. 다만 f v q 같은 기호가 동원되어 다소 생소하나 이는 능률을 위한 대가이다. 중국에서는 q로 “츠” 소리를 적고 x 는 “시” 소리를 적는데 사용한다. 이제 위에 말한 세가지 표기법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자.

- 1) 입력 타수에서 필자의 통신용 표기

법이 43타, 문교부 안이 57타, 그리고 현행 안이 60타로 나타났다. 상당한 차이가 드러난다. 타수가 많으면 그 만큼 입력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비능률적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2) 현행 안에서 /\*/ 로 대체한 반달 표시는 컴퓨터 자판으로는 실제로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치명적인 결점일 수밖에 없다.

3) 현행 안과 문교부 안은 한글 한 글자를 두개의 로마자로 적기 때문에 비능률적일 뿐 아니라 경계가 불분명하여 혼란스럽다. 가령, ae(애)는 a+e, 즉 “아에”로 인식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eoreun(애어른)과 aeeui(애의)는 경계가 불분명하여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어서 혼란스럽다.

또 cho\*ngi는 cho\*ng'i ‘정이/청이’인지 cho\*n'gi ‘전기/천기’인지 애매하다. 그러나 통신용 표기법으로는 jvqi “정이”와 jvngi “전기”로 분명히 갈라 적을 수 있어서 가독성이 높고 혼란이 없다.

4) 현행 안의 pal 과 p'al 은 게르만계통의 서양인이자라면 모두 ‘팔’로만 인식하게 되어 ‘발’과 ‘팔’이 구별이 안된다. 동시에 ‘발’이란 말은 아예 사라지게 되니 멀쩡한 우리말이 파괴되는 결과를 빚는다. 따라서 현행 안은 한글로의 환원성이 대단히 빈약하고 의미 전달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결점을 안고 있다.

결과적으로 위에 말한 로마자 표기법의 3가지 기본 원칙에 가장 충실하며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표기법으로는 국제통신용 표기법이 단연 앞선다고 본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와 이공계에서 우리말 자료를 대량으로 처리할 때에도 능률을 발휘할 것이다.

21세기의 한국 과학도들이 심각하게 음미해 볼만한 문제가 아닐까! ㉞